

욥의 아내의 말이 지닌 해석적 열쇠

이윤정*

1. 들어가는 말

욥기 2:9에 나타난 욥의 아내의 말은 욥기 전체에서 이곳에 단 한 번 나온다. 그래서인지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 고난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욥의 순전하고 위대한 신앙을 발견하지만,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는 욥의 아내의 말은 독자들에게 왠지 막다른 절박함을 전달하며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

사실 수 세기 동안 유대 랍비¹⁾와 초대 교부들²⁾로부터 최근 욥기 학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욥의 아내의 말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해석과 긍정적인 해석으로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욥의 아내의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에게 욥의 아내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남편에게 위로는커녕 하나님을 욱하도록 부추기며, 독한 말로 남편을 비난한 자이다. 또한 욥의 아내는 ‘사탄이 욥을 유혹하기 위해’³⁾ 앞선 재난 중에도 남겨둔 자이거나,

* 한국신학정보연구원, 연구원

- 1) D. J. A. Clines, *Job 1-20* (Texas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89), lxxvii-lxxviii.
- 2) Philip Schaff(ed.),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Christian Church Volume VIII, Saint Augustine: Expositions on the Book of Psalms*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9-1975), 224-5; the Great Gregory, *Morals on The Book of Job* (Oxford: John Henry Parker, 1844), 137.
- 3) C. L. Seow, *Job 1-21, Interpretation and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3), 296. 싸아우는 4세기경, Junius Bassus의

‘사탄에게 무의식중에 이용당한 자’이거나, ‘사탄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자’이다.⁴⁾ 더 나아가 이런 부정적인 해석의 근거는 초대교회의 ‘어거스틴과 칼빈의 영향’이거나,⁵⁾ 의인 욥의 고난과 신앙적 결과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된다.⁶⁾ 또한 ‘성경 본문의 해석자들과 설교자들이 여성보다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의도치 않더라도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해석을 해왔다’고 비판되기도 한다.⁷⁾

석관의 새김에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 아담에 대한 이브의 역할에 관하여, 욥에 비유된 아담과 욥의 아내 사이에 사탄이 함께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S. Meier, “Job 1-2: A Reflection of Genesis 1-3,” *VT* 39 (1989), 188-190, cited in C. L. Seow, *Job 1-21*, 296. 메이어는 그의 논문에서 욥기 1-2장과 창 1-3장 간의 유사성을 주장하고 있다.

- 4) Ibid., 292. 싸이우는 욥의 아내에 관한 해석사를 설명하면서, 초기 기독교 시대에 욥의 아내는 이브의 모형으로서 유혹하는 여자이자, 사탄의 대리자이며, 욥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첫 번째 시험에도 의도적으로 살아 남겨진 자이고, 욥은 첫 번째 아담과는 달리 유혹을 이긴 두 번째 아담으로 여겨졌음을 말한다.
- 5) Clines, *Job 1-20*, 50-5; Thomas Aquinas, *The Literal Exposition of Job: A Scriptural Commentary concerning Providence* (ed. and trans. A. Damico[translator] and M.D. Yaffe [Interpretive Essays and Notes],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Classics in Religious Studies, 7, Atlanta: Scholars Press, 1989), 94-5; John Calvin, *Sermons on Job*, 16th-17th Century Facsimile Editions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93), 39-41.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은 욥의 아내를 악마의 보조자(Devil's assistant, diaboli adjutrix)로,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는 사탄이 유혹하는 여인(woman as temptress)의 원형인 이브와 유사한 자로, 칼빈(Calvin, 1509-1564)은 사탄의 도구(Satan's tool)로 보았으며, 이들은 사탄이 욥의 아내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 이전 재난 가운데 살아있도록 남겨둔 자로 보았다. 또한 욥의 아내는 경건과 번영의 인과 관계를 신뢰하는 자이며, 사탄의 예견대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없는 경건을 믿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6) Seow, *Job 1-21*, 292. 싸이우는 특히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욥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시험을 욥의 시험과 유사하게 묘사하였다고 설명한다.
- 7) Clines, *Job 1-20*, xlviii-l. 클라인즈는 욥의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남성 중심적 해석임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적 관점을 언급한다; 욥기의 페미니스트적 해석은 다음 연구들을 참고하라. F. R. Magdalene, “Job's Wife as Hero: A Feminist-forensic Reading of the Book of Job” *Biblical Interpretation* 14, 3 (2006) 209-258; G. West, “Hearing Job's Wife: Towards a Feminist Reading of Job” *Old Testament Essays* 4 (1991), 107-131; A Brenner, “Some Observations on the Figurations

한편 욥의 아내의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에게 욥의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고, 여주인과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잃은 자이다. 또한 사회적 지위와 공동체에서의 도덕적 지위 역시 잃은 자이다. 그러나 욥에게 닥친 기막힌 고난과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편 곁을 지키고 보살핀 자’이며(욥 19:17), 남편의 고통에 깊이 동참하고 그 마음에 백분 공감한 자이다. 욥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경건과 번영의 인과 관계’⁸⁾를 말하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믿는 자였다. 그녀가 토로한 탄식은 하나님께서 전통적인 법칙을 깨뜨리셨기 때문이었다. 또한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욱하고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라고 권했다면, 그것은 욥의 죽음이 회복 불가능한 오랜 고통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제안이 불경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신앙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소극적 안락사(euthanasia)’를 선택하게 하는 신학적인 방법이자 인간적인 권면이었다.⁹⁾ 다시 말하자면 욥의 아내의 말은 남편의 고통에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여인의 심정으로 함께 공감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외침이라기보다는 탄식의 감정

of Women in Wisdom Literature,” in Brenner (ed.), *Feminist Companion to Wisdom Literature*, 50-66; Ellen van Wolde, “The Development of Job: Mrs Job as Catalyst” in A Brenner(ed.), *The Feminist Companion to Wisdom Literature*, (FCB, 9;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201-221; C. Camp, *Wisdom and the Feminine in the Book of Proverbs* (Sheffield: Almond Press, 1985); C. R. Fontaine, “The Social Roles of Women in the World of Wisdom,” in Brenner (ed.), *The Feminist Companion to Wisdom Literature*, 24-49; S. Schroer, “Wise and Counselling Women in Ancient Israel: Literary and Historical Ideals of the Personified *hokma*,” in Brenner(ed.), *The Feminist Companion to Wisdom Literature*, 67-84.

8) Clines, *Job* 1-20, 51.

9) Samuel Terrien, *The Book of Job: Introduction and Exegesis by Samuel Terrien, Exposition Paul Scherer, In the Interpreter's Bible, III.* (New York: Abingdon, 1954), 921; S. E. Balentine, *Job, Smyth and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Helwys, 2006), 63; Clines, *Job* 1-20, 51; Seow, *Job* 1-21, 295; 썬아우는 이것을 ‘신학적 안락사 방법(theological method of committing euthanasia)’라고 표현한다.

을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아니면 욱의 고통을 차마 볼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신학적인 방법의 안락사를 제안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욱기 연구에 있어서 욱의 아내의 말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른 관점의 시각으로 양립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욱의 아내의 말이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대립되거나 다양하게 해석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막에서 차지하는 구성적 위치와 그 의미의 중의성(重意性)이 갖는 기능적 역할이 욱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축소되었거나 도외시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욱의 아내의 말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해석적 견해를 취하거나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이제까지 우선적인 독법으로 해석되어온 욱의 아내의 말을 포함한 구절(2:9-10)이 어휘적인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의 중의성을 지닐 수 있는지 제시하고, 이와 함께 욱기의 서막 안에서 욱의 아내의 말이 구조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여 있으며, 그 구성적 위치가 지닌 기능은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한다. 나아가 의미적 중의성이 지닌 모순된 의미의 해석적 여백이 구성적 위치가 지닌 기능적 역할과 함께, 욱기 전체의 물꼬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욱의 아내의 말을 중심으로 한 2:9-10이 지니고 있는 의미적 중의성이 어떻게 욱기의 물꼬를 여는 해석적 열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욱기 2:9-10에 나타난 의미적 중의성(semantic ambiguity)

2.1. 욱의 아내의 말: 천상의 의심인가? 천상의 확신인가?(2:9a)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2:9a)라는 욱의 아내의 말은 “이상하리만큼 모호하다”(curiously ambiguous)¹⁰⁾ 우선 ‘의문문’¹¹⁾ 으

로 해석되어 온 이 구절은 천상에서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2:5b; **וְלֹא-אֶל-פְּנֵי יְיָ יִבְרַחְךָ**)라고 말했던 ‘사탄의 예언이 금방이라도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 전조’를 보여준다.¹²⁾ 욥의 아내는 천상에서 욥을 의심하던 사탄을 두둔하며, 지상에서 욥에게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어조로 말한다. “당신은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 분명 헛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까?”라고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2:9a의 히브리어 본문(**עַדָּהּ מַחֲזִיק בְּתַמְתּוֹתָיִךְ**)은 의문문이 아닌 ‘서술문’¹³⁾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게 본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 구절은 천상에서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2:3ba; **וְעַדָּהּ מַחֲזִיק בְּתַמְתּוֹתָיִךְ**)라고 사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판결과 같은 단언’¹⁴⁾이 될 수 있다. 즉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킵니다.”라는 욥의 아내의 말은 욥의 온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그의 아내를 통해 지상에서 그대로 듣는 것이 된다. 욥의 아내는 남편의 순전함을 의심하지 않았다. 제한적이고 모호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녀가 인간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중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의 지상 중개자’¹⁵⁾로서 욥의 순전함과 성실함을 인정한 것이다. 그녀는 하나님처럼 욥의 인내를 지켜보았고, 여전히 욥의 신실함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처럼 욥이 여전히 ‘진실한 의인’¹⁶⁾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욥의 아내의 말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킵니까?”(2:9a) 혹은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킵니다.”(2:9a)로

10) Balentine, *Job*, 62.

11) GKC, 『게제너우스 히브리어 문법』, 신원수역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3), §150a; 게제너우스는 히브리어에는 의문사 없이도 상황에 따라 의문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2) Seow, *Job* 1-21, 296.

13) Balentine, *Job*, 62; Clines, *Job* 1-20, 51; Seow, *Job* 1-21, 296;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지혜 탄식, 논쟁 안에 있는 신학과 인간학』(서울: 한국 성서학 연구소, 2006), 69-71.

14) Seow, *Job* 1-21, 296.

15) Ibid., 296.

16) Balentine, *Job*, 62.

해석될 수 있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그녀의 말이 지닌 의미는 ‘사탄의 말’을 반영했거나, ‘주님의 말씀’을 반영한 것이다.¹⁷⁾ 즉 욥의 아내의 이 말은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2:5b)라고 사탄이 제안한 ‘천상의 의심’(celestial doubt)과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2:3b¹⁸⁾)라고 하나님께서 단언하신 ‘천상의 확신’(celestial confidence)이 지상에서 함께 재현되는¹⁸⁾ 의미론적 중의성을 갖는다.

2.2. 욥의 아내의 말: 절망의 분노인가? 동정의 연민인가? 사랑의 중재인가?(2:9b)

씨아우(C. L. Seow)에 의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2:9b; **יָרִיתִי אֱלֹהִים בְּרָבָה**)라는 욥의 아내의 마지막 말도 “마찬가지로 애매하다.”(equally ambiguous)고 말한다.¹⁹⁾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 **רָבָה**의 번역 문제와 함께 70인역을 비롯한 다른 역본들의 해석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2:9b^a의 히브리어 본문으로 “하나님을 욕하라”(יָרִיתִי אֱלֹהִים בְּרָבָה)의 구절은 전통적으로 바라크(**רָבָה**)를 ‘완곡어법(euphemism)’²⁰⁾으로 해석하여 ‘욕하라’ ‘저주하라’로 번역되었다. 이 의문의 단어인 **רָבָה**의 어근은 욥기 안에서 ‘9번 나타나며(1:5, 10, 11, 21; 2:5, 9; 29:13, 31:20; 42:12)’, ‘1:21의

17) Clines, *Job* 1-20, 51.

18) Seow, *Job* 1-21, 296.

19) Balentine, *Job*, 63.

20) 바라크(**רָבָה**) 동사의 완곡어법(euphemism) 적용은 원저자나 필사자가 본문에서 하나님을 직접 저주하는 의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거나, 후대 필사자의 수정으로 추정되는 문학적 장치 등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욥기 학자들은 ‘바라크’의 완곡어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석해왔지만, 최근 몇몇 학자들은 바라크에 대한 완곡어법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다음을 참고하라. Edwin Good, *In Turns of Tempest: A Reading of Job*,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196, 200; Tod. Linfelt, “The Undecidability of **רָבָה**; in the Prologue to Job and Beyond,” *Biblical Interpretation*, 4:2 (1996), 154-172;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지혜 탄식, 논쟁 안에 있는 신학과 인간학』(서울: 한국 성서학 연구소, 2006), 69-71.

푸알 동사 형태를 제외한 7번은 피엘 동사 형태, ‘1번은 명사 형태(29:13)’로 나온다.²¹⁾ 그 가운데 6개의 בָּרַךְ 동사가 욥의 서막에 나오며, 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축복하다, 복을 주다(1:10), 찬양하다(1:21)’의 의미로 해석되었고,²²⁾ 1:5, 11; 2:5, 9의 구절은 완곡어법을 적용하여 반의적인 의미로 ‘저주하다, 욕하다’로 해석되었다.²³⁾ 따라서 “하나님을 욕하라”는 욥의 아내의 말은 1:11b(בָּרַךְ אֱלֹהֵיךָ)과 2:5b(בָּרַךְ אֱלֹהֵיךָ)에 나오는 사탄의 말(주를 향하여 욕하다)의 ‘반향’(echo)²⁴⁾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2:9b의 “죽으라(מָוֹת)” 구절은 대부분의 영어 역본을 비롯한 다른 역본들에서도 접속사 베(וְ)를 ‘병렬의 바브’²⁵⁾로 연결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Curse God and die!’)로 번역되었다. בָּרַךְ의 ‘완곡어법’과 ‘병렬의 바브’를 적용하여 ‘(차라리 당신의 온전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버리세요’라고 해석한 것이다. 욥의 아내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충격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함을 유지하려는 욥에게 원망에 가득 찬 탄식을 내뿜었다. 결과적으로 무심코 사탄에게 이용당했거나 사탄에게 동조한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믿었으며 경건과 번영의 인과관계 역시 신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신학의 법칙을 깨뜨리셨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욥의 아내에게도 지금까지 따라왔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충격 그 자체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는 신정론의 원칙도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이 같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으며 욕을 듣는 것이 마땅하고 욥은 차라리 스스로 죽음을 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맞다. 한마디로

21) Tod. Linafelt, “The Undecidability of בָּרַךְ; in the Prologue to Job and Beyond,” *Biblical Interpretation*, 4:2 (1996), 156.

22) Christopher Wright Mitchell, *The Meaning of BRK “To Bless” in the Old Testament*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7), 133-160.

23) Ibid., 161-4.

24) Balentine, *Job*, 63.

25) Paul Joüon-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김정우 역, 『성서 히브리어 문법』(서울: 도서출판 기혼, 2012), § 120, 446-8.

그녀의 말은 ‘**절망의 분노**’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2:9bb “죽으라”(מָוֹת)의 구절에 77b의 ‘완곡어법’과 ‘결과의 개념을 표현하는 계승의 바브’²⁶⁾를 적용하면 의미는 달라진다. 이 구절은 첫 번째 명령형(77b) 다음에 나오는 명령형(מָוֹת)으로 그 의미를 ‘결과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²⁷⁾ 즉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욱하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세요”, 혹은 “하나님을 욱하고 그 결과로 인한 죽음으로 당신 자신을 편하게 하세요”라고 말한 것이다. 욥의 아내는 욥의 고통에 깊이 동참하며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녀는 처참한 욥의 고통을 차마 볼 수 없었고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덜어주기 원했다. 더욱이 신실한 남편인 욥이 품위 있게 죽을 수 있기를 원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차라리 신뢰를 깨뜨린 하나님을 저주하여 그 결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욥의 처절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소극적인 안락사를 권한 것’²⁸⁾일 수 있다. 전통적인 지혜 사상에 비추면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의 죽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신 28:45; כָּל־לֵלָה)’로 온몸에 종기(신 28:35; רַע, שְׂחִין, רָע)가 생기는 질병을 얻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만신창이가 되어 괴로워하고 있는 욥이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욱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이 같은 욥의 아내의 말은 절망의 분노라기보다 욥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욥이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제안이었다. 사랑하는 남편의 기약 없는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아내의 마음을 표현한 ‘**동정의 연민**’이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욥의 아내를 ‘궁정적으로 혹은 동정

26) Ibid., § 120, 446-8; 단순 바브가 아닌 강세의 바브로서, 결과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바브로 사용된 경우이다.

27) Ibid., § 116f; 결과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바브는 의지법(권유, 지시, 명령) 다음에 의지법(권유, 지시, 명령)이 사용되는, 즉 직접명령 다음에 나오는 간접명령으로 ‘~하라 그러면(~하면), ~할 것이다’로 해석된다.

28) Balentine, *Job*, 63.

적으로’²⁹⁾ 묘사한다. 특히 70인역은 욥의 아내의 사정을 확장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을 욥하라”의 구절을 다음과 같이 모호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죽으세요”(ἀλλὰ εἰπόν τι ῥῆμα εἰς κύριον καὶ τελεύτα).³⁰⁾ 더욱이 Aquila, Vulgate, Targum과 같은 다른 역본들과³¹⁾ T. Linafelt³²⁾나 E. Good³³⁾ 등의 제안은 의문의 바라크(בָּרַךְ)를 완곡어법으로 대체하여 읽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렇게 바라크(בָּרַךְ)에 완곡어법을 적용하지 않고 ‘축복하다, 찬양하다(bless)’의 독법으로 읽는다면, “하나님을 욥하라”는 말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녀의 말은 “당신은 정말 이제까지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온전함을 유지하는군요, 지금 당신이 죽을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세요”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욥하라”고 종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세요” 라고 말한 것이다.³⁴⁾ 이때 그녀는 욥에게 오히려 위로와 사랑의 중개자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29) Balentine, *Job*, 63.

30) Seow, *Job 1-21*, 304-6. 싸아우는 70인역이 but say some word against the Lord, and die;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말하고 죽으세요”라고 표현됨을 언급한다; Balentine, *Job*, 64; 발렌타인은 70인역의 2:9은 욥의 고통의 결과로 인한 그 아내의 장기간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으며, 욥이 잿더미에 자신을 맡기는 동안 그녀는 길거리를 방황하는 신세에 처해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피곤에 지쳐서 복받친 권고를 하였다고 덧붙인다.

31) Ibid., 304-6.

32) Tod. Linafelt, “The Undecidability of בָּרַךְ in the Prologue to Job and Beyond,” *Biblical Interpretation*, 4:2 (1996), 154-172.

33) Seow, *Job 1-21*, 305; E. Good, *In Turns of Tempest: A Reading of Job*,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196, 200. E. Good는 이 의문의 바라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완곡어법의 적용을 포함하여 4가지의 해석을 제안한다. 첫째, 하나님께 작별인사를 드리고, 죽으세요(farewell), 둘째,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세요(rebellion), 셋째, 당신의 온전함을 계속 고수하고, 죽음을 각오하세요(encouragement), 넷째, 하나님을 욥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pity).

34) Balentine, *Job*, 63.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라는 권면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 욥의 아내가 욥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중재하는 천사의 임재’³⁵⁾로 나타나고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처럼 2:9의 욥의 아내의 말은 세 가지의 의미적 중의성을 지닌다. 첫째, “하나님을 욱하고 죽음을 택하세요”라는 ‘절망의 분노’를 뜻한다. 둘째, “하나님을 욱하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세요”, 혹은 “하나님을 욱하고 그 결과로 인한 죽음으로 당신 자신을 편하게 하세요”라는 ‘동정의 연민’을 표현한다. 셋째, “지금 당신이 죽을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세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재하는 ‘사랑의 중재’를 의미하게 된다.

2.3. 욥의 대답: 주의인가? 거절인가? 실망인가?(2:10a³)

그렇다면 2:10a³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라고 한 욥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같은 욥의 말로 미루어 추측하건대 욥의 아내가 한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추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욥은 자신의 아내의 말을 정작 아내의 의도대로 이해한 것일까?의 의문이 남는다.

씨아우(Seow)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어리석은’으로 번역된 나발(**נָבָל**)이라는 용어는 ‘남성적 차별주의자가 여인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며, 지혜문학으로부터 전해지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잠 17:21**)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NAB(New American Bible)처럼 공감능력이 없는 것을 뜻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³⁶⁾ 단지 “전통적으로 신학적이고 윤리적이며 사회적인 규범을 넘어 행동하거나 말하는 사람을 나타내거나, 공동체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는 것이다(**창 34:7**, **신 22:21**, **삼상**

35) Ibid., 63.

36) Seow, *Job* 1-21, 305.

25:25, 삼하 13:12, 사 32:5).”³⁷⁾ 따라서 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자들이 늘 그렇듯이 어리석게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욱의 아내가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규범들을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는 무모한 반응”³⁸⁾을 하였다는 것이다. 즉 욱의 이 말은 탄식의 외침이었던 아내의 절망적 분노에 대해 ‘주의(主意)’³⁹⁾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발렌타인(Balentine)은 나발(**נָבָל**)이라는 용어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시 14:1), 의인을 경멸하는 사람들(시 39:8, MT39:9), 사회적으로 무시되고 꺼려지는 평판이 나쁜 사람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어느 쪽 일지라도 욱은 분명 그의 아내의 생각을 물리치고 그녀의 말들을 즉시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⁴⁰⁾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욱은 아내의 권고에 대해, 분노이든, 연민이든, 중재이든, 어떤 동기를 가지고 말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욕이 아내의 권고를 곧바로 일축하고 ‘거절’(dismiss, discount)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⁴¹⁾

또한 클라인즈(Clines)에 의하면, 이 나발(**נָבָל**)이라는 용어는 ‘(1) 지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의 사람과 대조되거나, 신 32:6의 지혜자(**חָכָם**)에 대응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2)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인 의미의 악인(**רָעָה**; 시 14:1, 시 10:4, 39:9[8], 39:2[1])으로 사용’되거나, (3) ‘신망이 없는, 이름 없는(**בְּלִי-שֵׁם**)의 의미로, 사 32:5과 잠 17:7의 나디브(**נָדִיב**, 고상한)와 대조되고, 삼하 3:33, 잠 30:22과 연관’되어 사용되었다⁴²⁾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특히 이곳의 ‘나발(**נָבָל**)’이라는 어휘가 ‘이성이 부족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무지한 것(Driver, Gray), 심각하게 무질서하고 제어하기 어려운 행동, 버림받은(outcast)이라는 가장 오래된 의미의 형용사’일

37) Ibid., 305.

38) Ibid., 305.

39) Ibid., 305.

40) Balentine, *Job*, 63.

41) Ibid., *Job*, 63.

42) Clines, *Job* 1-20, 53-4.

수 있음을 주장한다.⁴³⁾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나발(**נָבָל**)은 욥이 ‘어리석은 여자의 그룹’⁴⁴⁾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형용사가 특히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배경으로 낮은 계층 혹은 평민과 같은 사회적인 의미’⁴⁵⁾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의 아내에 대한 욥의 응수는 “당신은 낮은 계층의 비신앙적인 여인처럼 말하는군요 그런 말들은 당신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를 의미한다.⁴⁶⁾ 한마디로 ‘**실망**’의 기색이 역력함을 보여준다.

한편 여기서 2:9b “하나님을 욱하고 죽음을 택하세요”, “하나님을 욱하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세요”, 혹은 “하나님을 욱하고 그 결과로 인한 죽음으로 당신 자신을 편하게 하세요”라는 아내의 권면에 대해 욥이 자신의 아내를 어리석다고 말한 근거를 찾는다면, 절망적인 분노에 ‘주의’를 주었거나, 동기에 상관없이 일축하거나 ‘**거절**’했을 수 있다.

그러나 욥의 아내가 “지금 당신이 죽을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세요”라고 권면했다면 욥은 아내의 말을 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고 한 것인가?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추측컨대 아마도 이것은 욥의 아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욥의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회복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을 뿐 아니라, 불확실한 욥의 죄로 인한 결과일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죽음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해 욥에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라고 한 것은 욥에게는 마치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은 것이었을 수 있다. 이 같은 아내의 말은 욥에게 믿음이 없는, 비신앙적인,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어리석은 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품위를 갖추지 못한 아내의 말에 ‘**실망**’한 나머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라고 말했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43) Ibid., 53-4.

44) Ibid., 53-4.

45) Ibid., 53-4.

46) Ibid., 54.

이와 같이 2:10a^a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라고 한 욥의 말 역시 의미적 중의성을 갖는다. 이 욥의 말은 탄식의 외침으로 절망적 분노를 나타낸 아내의 말에 대해 ‘주의(主意)’를 주는 의미를 뜻하거나, 아내의 말이 분노이든, 연민이든, 중재이든, 어떤 동기를 가진 권고이든 간에 욥이 아내의 권고를 곧바로 일축하는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거나, 아내의 말이 욥의 기대와는 달리, 믿음이 없거나, 비신앙적이거나, 그리고 품위에 갖추지 못함으로 ‘**실망**’의 의미일 수 있다.

2.4. 욥의 대답: 단언의 선언인가? 의문의 질문인가?(2:10a^b)

욥은 2:10a^a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라는 말에 이어서, 2:10a^b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의 아내에게 말한다.

이 구절은 두 번째 시험 후에 욥이 선언한 ‘믿음의 고백’이다. 그리고 욥이 그의 아내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고 말한 또 다른 근거가 된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믿음을 단언한 내용일 수 있다. ‘하토브(חַטָּב)’의 상관어구인 하라이(הֲרֵי)가 윤리적인 문맥이라면 도덕적인 악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복의 반대 의미인 축복의 결핍’을 의미한다.⁴⁷⁾ 즉 우리는 복이든 화이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 하든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교류가 함축된 것(לְבָב)’⁴⁸⁾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저항은 무익한 것이다”⁴⁹⁾라는 의미이다. “욥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도피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었

47) Clines, *Job* 1-20, 54.

48) Ibid., 54. 여기서 카발(לָב, 취하다, 받다)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 라카흐(לָקַח, 취하다)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류를 함축하는 적극적인 단어이다.

49) Ibid., 54.

으며, 1:21에서처럼 자신의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⁵⁰⁾ ‘**단언의 선언**’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언급된 1:21과 비교할 때 다른 관점의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2:10a^b)”라는 욥의 단언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1:21)라고 말한 욥의 고백으로부터 미묘한 뉘앙스의 전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10a^b에서 욥의 말은 1:21에서처럼 이제 더 이상 단정적인 선언의 어조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여기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저주하지도 않는다. 욥은 ‘무언가 마치 못해 적용하는 듯한’⁵¹⁾ ‘**의문의 질문**’을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욥은 1:21에서 여호와와 주권과 자유에 대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여호와 (יהוה)’의 이름으로 자신의 주님을 찬송’했었다. 그러나 2:10a^b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과 화의 근원이시라는 말 대신 ‘하나님(אֱלֹהִים)’으로부터 받는 인간의 수혜⁵²⁾에 대해 초점이 있을 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인되심을 찬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욥은 여기서 ‘자신의 주님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기보다는 ‘먼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⁵³⁾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1:21에서의 욥은 천상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었다면 2:10ab에서는 지상을 향한 인간 중심의 관점이었다. 그리고 이후에 내레이터 역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언급할 뿐이다. 이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화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탄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전조를 느끼게 한다.⁵⁴⁾

50) 하경택, 『욥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68.

51) Balentine, Job, 65; E. Good, *In Turns of Tempest: A Reading of Job*, 200-1.

52) Ellen van Wolde, “The Development of Job: Mrs Job as Catalyst” in A Brenner(ed.), *The Feminist Companion to Wisdom Literature*, (FCB, 9;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201-221), 204-5.

53) Ibid., 204-5.

54) 실제로 이어지는 욥기 3장 이후로 욥의 탄식과 불평이 나타난다.

이처럼 2:10a^b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구절 역시 의미적 중의성을 갖는다. 이는 욥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내는 ‘**단언의 선언**’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욥의 이 말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함이 없고, 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간의 수혜에 초점을 맞추어진 ‘**의문의 질문**’일 수 있는 것이다.

2.5. 내레이터의 평가: 입술의 경건인가? 마음의 경건인가?(2:10b)

내레이터는 2:10b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는 평가의 보고로 서막의 다섯 번째 장면을 결론짓는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곧 욥이 지혜 전통에서 인정되는 이상적인 지혜자임이 인정되는 것이다(잠 13:3, 21:23). 이 구절의 핵심은 “욥이 두 차례의 혹독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고 사탄의 의혹을 물리쳤으며”⁵⁵⁾ “욥이 확고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두 시험을 잘 마쳤음에 있다”⁵⁶⁾고 주장된다. 즉 욥에게 있어 **입술의 경건**이 우선적으로 **마음의 경건**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구절은 고대 랍비의 주석가들에 의해, “비록 욥이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⁵⁷⁾고 전해진다. 특히 이븐 에즈라(Ibn Ezra)는 “욥이 이런 생각들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곧 그렇게 할 것이었다”⁵⁸⁾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욥은 순전한 의인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55) 하경택, 『욥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68.

56) Tremper Longman III, *Job*,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12), 90.

57) Clines, *Job* 1-20, 55.

58) R. Gordis, *The Book of Job: Commentary, New Translation and Special Notes* (New York: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78), 22; Clines, *Job* 1-20, 55; Balentine, *Job*, 65-6.

않으려고 인간됨을 쓰고 있지만, “이미 그의 속마음은 죄를 짓고 있을 수 있다”⁵⁹⁾는 것이다. 또한 욥의 입술의 경건과 마음의 경건이 다를 수 있는 근거를 본문의 문맥에서 찾는다면, ‘욥이 그의 자녀들에게 염려했던 바,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1:5)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⁰⁾

이처럼 2:10b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의 구절 역시 의미적 중의성을 갖는다. 이것은 욥이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입술의 경건과 마음의 경건**이 일치됨을 나타낸 것일 수 있다. 반면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미 그의 속마음은 죄를 짓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입술의 경건과 마음의 경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필자는 이제까지 우선적인 독법으로 해석되어온 욥의 아내의 말을 포함한 구절들(2:9-10)이 어떤 의미의 중의성을 지닐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와 함께 욥기의 서막 안에서 특히 ‘욥의 아내의 말’이 구성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여 있으며, 그 구성적 위치가 지닌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욥기 전체의 해석에 어떤 기능적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지 발견하고자 한다.

2. 욥의 아내의 말이 지닌 구성적 위치의 기능

우선 욥기의 서막(1-2장)의 구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1:6-2:10의 내러티브 본문은 내부적으로 평행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학자들의 평행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⁶¹⁾, 로울리(H. H. Rowley), 하틀리(J. E. Hartley), 윌슨(Gerald H. Wilson), 씨아우, 그레이(John Gray)는 1:6-12

59) 안근조,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욥의 깨달음』 (킹덤북스, 2012), 31-2.

60) Seow, *Job* 1-21, 306.

61) <표-1>에서 *를 보라

이 2:1-6과, 클라인즈, 발렌타인, 앤더슨(Francis I. Andersen)은 1:6-12이 2:1-7a가 평행을 이룬다고 본다. 그리고 그레이는 1:13-19과 2:7-8이, 앤더슨은 1:13-19와 2:7b-8이, 로울리, 하틀리, 윌슨, 씨아우는 1:13-22과 2:7-10이, 클라인즈, 발렌타인은 1:13-22과 2:7b-10이, 그레이는 1:13-19과 2:7-8이, 앤더슨은 1:13-19과 2:7b-8이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언급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1:6-12과 2:1-6(7a)의 단락이, 그리고 1:13-22과 2:7(7b)-10의 단락의 내용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⁶²⁾ 그러나 이들은 평행구조를 이루고 있는 각 단락의 주제를 ‘여호와’, ‘사탄’, ‘욥’과 연관된 사건의 내용으로 요약하고 있을 뿐, 욥의 아내의 말(2:9)에 관한 내용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앤더슨과 그레이(John Gray)가 1:13-19와 2:7(7b)-8; 1:20-22와 2:9-10*이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말하면서 특히 2:9-10*의 구절을 세분하여 단락 구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⁶³⁾ 이들 역시 욥의 아내의 말(2:9)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표1>

욥 1:6-12 / 1:13-22 (1:13-19;1:20-22)의 단락 구분			욥 2:1-6(7a) / 2:7(7b)-10 (2:7(7b)-8; 2:9-10)의 단락 구분			
학자들의 단락구분	Rowley, Hartley, Clines, Balentine, Wilson, Seow.	Andersen, Gray.	Rowley, Hartley, Wilson, Seow.	Clines, Balentine.	Gray.	Andersen.
평행구조	1:6-12	1:6-12	2:1-6	2:1-7a	2:1-6	2:1-7a
	1:13-22	1:13-19	2:7-10	2:7b-10	2:7-8	2:7b-8
		1:20-22			2:9-10*	2:9-10*

62) H. H. Rowley, *The Book of Job*, NCBC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80), 28; J. E. Hartley, *Book of Job* (Grand Rapids: W.B. Eerdmans, 1988), 50-1; Clines, *Job 1-20*, 6; Balentine, *Job*, 42; Gerald H. Wilson, *Job*: NIBC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07), 1-34; Seow, *Job 1-21*, 250.

63) Francis I. Andersen, *Job,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1976), 75; John Gray, *The Book of Job* (Sheffield: Phoenix Press, 2010), 119.

한편 하벨(Norman C. Habel)은 이 서막(1-2장)의 평행구조를 좀 더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⁶⁴⁾ 그는 1:6-7과 2:1은 ‘배경’으로서 ‘천상회의’를, 1:8과 2:2-3은 ‘촉매(계기적 요소)’로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고백, 그리고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을, 1:9-11과 2:4-5은 ‘갈등-도전’으로서 ‘대적(사탄)이 욥과 그의 하나님 간의 갈등을 예견함’과 ‘대적(사탄)이 (다시) 욥과 그의 하나님 간의 갈등을 예견함’을, 1:12과 2:6은 ‘갈등-도전의 수락’으로서 ‘하나님은 욥을 고난으로 시험하는 도전을 수락하심’과 ‘하나님은 (다시) 욥을 고난으로 시험하는 도전을 수락하심’을, 1:13-19과 2:7-8은 ‘갈등-실행’으로서 ‘욥이 고난을 받음’을, 2:9은 “부차적인 복잡한 문제 (Secondary Complication)* ”로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요구함’으로 제시하며 이렇게 욥의 아내의 말을 평행 구조 안에서 ‘복잡한 성격의 구절’로 제시한다. 즉 이 구절이 평행구조와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1:20-21과 2:10a은 ‘분명한 해결’로서 ‘욥이 순종하고 그 시험을 이김’과 ‘욥이 (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고난에 순종하여 시험을 이김’을, 1:22과 2:10b은 ‘종결’로서 ‘욥의 반응에 대한 내레이터의 평가’를 평행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하벨 역시 욥의 아내의 말(2:9)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구절이 구성적으로 이곳에 위치함으로써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며 의문의 여지만 남길 뿐이다.

<표2>

Habel	Habel
1:6-7 배경 : 천상회의.	2:1 배경 : 천상회의.
1:8 촉매(계기적 요소) :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	2:2-3 촉매(계기적 요소) : (하나님의 고백과)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
1:9-11 갈등-도전	2:4-5 갈등-도전

64)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85), 70-1, 79-80; <표2>를 보라.

: 대적(사탄)이 욥과 그의 하나님 간의 갈등을 예견하다.	: 대적(사탄)이 (다시) 욥과 그의 하나님 간의 갈등을 예견하다.
1:12 갈등-도전의 수락 : 하나님은 욥을 고난으로 시험하는 도전을 수락하다.	2:6 갈등-도전의 수락 : 하나님은 (다시) 욥을 고난으로 시험하는 도전을 수락하다.
1:13-19 갈등-실행 : 욥이 고난을 받다.	2:7-8 갈등-실행 : 욥이 고난을 받다.
	2:9 부차적인 복잡한 문제 (Secondary Complication)* :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요구하다.
1:20-21 분명한 해결 : 욥은 순종하고 그 시험을 이기다.	2:10a 분명한 해결 : 욥은 (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고난에 순종하여 시험을 이기다.
1:22 종결 욕의 반응에 대한 내레이터의 평가.	2:10b 종결 욕의 반응에 대한 내레이터의 평가.

이와 함께 욥의 아내의 말이 지닌 구성적 위치의 기능을 언급함에 있어서, 욥기 2장과 42:7-10을 ‘내러티브의 다리’(narrative bridge)와 ‘신학적인 회전축’(theological pivot)⁶⁵⁾으로 보는 Paul K.-K. Cho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그에 의하면, “욥기 내러티브는 1장과 42:11-17,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2장과 42:7-10의 4개의 산문 틀(2:1-7a, 2:7b-10, 2:11-13, 42:7-10)로서 연결되고, 이것들은 욥기의 신학적인 경첩으로 기능한다.”⁶⁶⁾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그는 2:7b-10절 안에 위치하고 있는 욥의 아내의 말(2:9)은 구성적 위치에 있어서 ‘상반된 양극(하늘과 땅, 내러티브와 시적 대화, 경건과 저항)을 잇는 일종의 이맷돌(keystone)’⁶⁷⁾일뿐 아니라 ‘지레 받침, 지주(fulcrum)’⁶⁸⁾로서

65) Paul K. -K. Cho, “Job 2 and 42:7-10 as Narrative Bridge and Theological Pivot” *JBL* 136: 4(2017), 857-77.

66) Ibid., 865.

67) Ibid., 866; 영어의 keystone은 아궁이 위의 앞부분에 가로로 길게 걸쳐 놓은 돌로서 ‘이맷돌’이라고 불리거나, 아치 다리의 최상단 중앙부에 끼워넣는 췌기형태의 돌로서 췌기돌이라고 일컬어지며, 근본 원리, 중추, 중심을 의미한다.

68) Ibid., 871; 영어의 fulcrum은 “지렛대의 받침점, 지렛목,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주, 버팀대”라고 불리운다.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욱기 서막(1-2장)의 단락에서 평행구조와 어울리지 않는 ‘욕의 아내의 말’(2:9)은 하벨이 언급한 것처럼 평행 구조상의 난해한 구절로서 ‘부차적인 복잡한 문제’라기 보다, 오히려 평행구조를 깨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엇보다 1-2장에서 욱의 아내의 말이 지닌 평행 구조상의 구성적 위치가 지닌 기능은 본문의 평행구조를 깨뜨리고 부각 되어서 독자로 하여금 그 말을 더욱 주목하게 만든다. 더욱이 Paul K.-K. Cho가 언급한 것처럼, 구성적 위치에 있어서 2:7b-10절 안에 위치하고 있는 ‘욕의 아내의 말’(2:9)은 욱기 내러티브 1장과 42:11-17과 함께, 2장과 42:7-10의 네 개의 산문 틀(2:1-7a, 2:7b-10, 2:11-13, 42:7-10) 안에서 하나의 ‘경첩’으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⁶⁹⁾ 평행을 깨는 요소로서 ‘전환축’의 기능을 제공하고, ‘이맛돌’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욱기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첫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욕의 아내의 말’을 포함한 2:9-10이 지닌 의미적 중의성과 모순된 의미의 여백과 함께, 욱기 서막 안에서 평행구조를 깨는 ‘욕의 아내의 말’이 지닌 그 구성적 위치가 앞으로 전개될 욱기 전체의 내용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키기 위한 ‘전환축’이자 ‘이맛돌(췌기돌)’로서 해석적 열쇠의 초석을 놓고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 논문에서는 ‘욕의 아내의 말’을 포함한 2:7b-10의 구절이 욱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구성적 위치를 연구하는 내용으로 확장하기에 앞서, 우선 이맛돌과 ‘전환축’으로서 기능하는 그 근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69) Ibid., 865.

3. 전환축과 이맛돌로서 해석적 열쇠의 기능

3.1. 전환축으로서 해석적 열쇠의 기능

‘욱의 아내의 말’은 욱기 전체의 전망을 위한 ‘전환축’과 ‘이맛돌’로서 그 해석적 열쇠의 기능을 제공한다. 우선 ‘욱의 아내의 말’은 내레이터와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평가받은 욱(1:1, 1:8)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며”(1:22),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2:10)는 내레이터의 보고를 듣기까지,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종 욱의 말이 옳다”(42:7-8)고 인정하시기에 이르기까지, 욱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반응을 표출하게 하여서 앞으로 전개될 욱기의 내용을 연결하는 ‘**전환축**’의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Ellen van Wolde는 그녀의 논문에서 욱의 아내의 말이 욱의 성숙에 있어서 “촉매(catalyst)와 같은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⁷⁰⁾고 주장한다. 비록 욱이 아내의 말을 어리석다고 일축했는지언정(2:10), 욱은 그의 아내의 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욱의 아내는 욱으로 하여금 죽음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라크(ברק)’와 ‘하나님을 욕하는 바라크(ברק)’ 사이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촉구”하였다.⁷¹⁾ 또한 욱의 아내의 말은 ‘무작정 믿는 믿음(cocksure believer)’으로부터 질문하는 믿음(an asker of questions)⁷²⁾으로의 ‘변화와 전환’을 이끌어냄으로써, 욱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반응을 표출하게 하는 기능을 한 것이다.

이처럼 ‘욱의 아내의 말’은 욱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게 한다. 또한 그것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게 하고 표출하게 하여, 변화와 전환을 이끌어내는 ‘**전환축**’의 역할을 한다.

70) Ellen van Wolde, “The Development of Job: Mrs Job as Catalyst” *The Feminist Companion to Wisdom Literature* (1995), 201.

71) Ibid., 205.

72) Ibid., 205-6.

3.2. 이맛돌로서 해석적 열쇠의 기능

뿐만 아니라 ‘옴의 아내의 말’은 옴의 잠재된 내면이 투영된 것으로서 ‘이맛돌’의 기능을 한다. 즉 아치의 꼭대기 앞부분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다른 돌들을 제자리에 있도록 지탱하게 해주거나, 아궁이 위의 앞쪽에 가로로 걸쳐 연결하여서 아궁이의 구조가 직화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이맛돌’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옴의 아내의 말’이 지닌 의미적 중의성과 그 모순된 의미의 여백은 ‘옴의 아내에게 투영(投影)된 인간 옴의 모순된 내면’으로 암시되어 나타난다. 다시 말해 옴의 아내에게 투영된, 모순되고 갈등적인 옴의 내면으로서 ‘옴의 아내의 말’은 옴기 전체의 서막에 위치하여 앞으로 전개되는 옴기의 내용들이 연결되어 제자리에 있도록 지탱하게 해주는 ‘이맛돌’의 역할을 함으로써, 옴기 전체의 물꼬를 여는 해석적 열쇠의 기능을 제공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2:9a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킵니까”라는 옴의 아내의 말이 지닌 중의성은 ‘천상에서의 의심’과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킵니다”라는 ‘천상에서의 확신’으로 대변되었다.

이처럼 옴의 아내의 말이 대변하고 있는, 천상의 의심과 천상의 확신이 공존하는 모순된 의미의 현장은 ‘옴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의 의문과 믿음’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문’은 옴기 3장에서 비롯되어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이어지는 치열한 질문과 탄식과 항변으로 나타나지만, 그가 가진 ‘의문’의 갈등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내의 말에 나타난 ‘천상의 의심’과 ‘천상의 확신’이 공존하는 모순된 의미의 현장은 옴의 내면에 잠재된 ‘의문과 믿음’이 투영된 것이며, 이 ‘의문과 믿음’이라는 신학적 의제를 지닌 옴의 아내의 말은 앞으로 전개되는 옴기 전체의 맥락을 지탱해주는 ‘이맛돌’로서 기능한다.

또한 2:9b의 욱의 아내의 말이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의 의미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경건과 번영의 인과 관계를 깨뜨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순전함을 유지하려 했던 욱에게 쏟아낸 ‘절망의 분노’로 대변된 것이었다. 이것은 곧 ‘욱의 내면 안에 잠재되었던 절망의 탄식과 항변’에 대한 투영이 된다. 즉 그동안 욱이 신뢰해 왔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충격은 앞으로 전개될 수많은 탄식과 절망의 분노와 항변이 투영된 것이 된다.

또한 욱의 아내의 말이 “하나님을 욱하고 그 결과로 인한 죽음으로 당신 자신을 편하게 하세요”의 의미였다면, 그것은 욱의 아내가 품었던 남편을 향한 안타까운 ‘동정의 연민’으로 대변된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앞으로 욱의 발언 가운데에서 표출될 ‘욱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연민’이 욱의 아내에게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욱의 아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세요”라는 의미였다면, 그것은 욱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재하는 것으로 대변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욱의 아내처럼 ‘욱의 깊은 내면에도 자리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이 투영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욱의 아내의 말이 지닌 의미적 중의성은 욱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모순되고 갈등적인 반응들이 욱의 아내에게 투영된 것을 나타낸다. 즉 ‘욱의 아내의 말’은 ‘욱의 의문과 믿음’, ‘욱의 절망의 탄식과 항변’, ‘욱의 자신에 대한 연민’, ‘욱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이 투영된 것이다. 또한 이렇게 ‘욱의 내면이 투영된 욱의 아내의 말’은 앞으로 전개될 욱기 전체의 맥락을 지탱해줄 뿐 아니라, 다양한 신학적인 의제들을 연결하는 ‘**이맏돌**’로 기능함으로써 38:42장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게 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나아가 2:10a에서 욱의 아내의 말에 대한 욱의 응수가 지닌 의미적 중의성 역시도 앞으로 전개될 친구들에 대한 욱의 반응을 암시한다. 욱의 아내의 말에 ‘주의’를 주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던 욱의 응수는 가장 가까운 자인 동시에 제3자일 수 있는 아내에 대한 첫 반응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 의미적 중의성은 다음 이야기에서 전개될 ‘제3자인 친구들에 대한 반응’의 전조를 암시한다.

그리고 2:10b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구절을 ‘단언의 선언’으로 본다면, 욥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도피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여전히 자신의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마음의 경건’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대변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욥은 ‘의문의 질문’이라는 중의성을 내포함으로써 자신의 수혜에 초점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지 않는 ‘입술의 경건’에 머무르는 ‘불평’의 순간들로 대변되는 것 역시 앞으로 전개될 신학적 의제를 전망하게 한다. 이와 같이 욥의 아내의 말을 포함한 2:9-10의 구절이 지닌 의미적 중의성은 욥의 아내에게 투영된, 모순되고 갈등적인 욥의 내면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욥기의 내용들이 연결되어 제자리에 있도록 지탱하게 해주는 ‘이맞돌’의 기능을 함으로써 욥기 전체의 물꼬를 여는 중요한 해석적 열쇠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의미적 중의성을 지니며, 서막에서 평행구조를 깨뜨리는 구성적 위치를 지닌 ‘욥의 아내의 말’은 욥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반응을 끌어내어 전환시키는 ‘전환축’의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의문과 믿음으로’, ‘탄식과 절망의 분노와 항변으로’, ‘동정의 연민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으로’ 욥의 아내에게 투영된 욥의 내면의 자아를 암시하고, 앞으로 전개될 욥기 전체의 내용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키기 위한 신학적 의제를 전망하게 하며, 그 내용들을 연결하여 지탱해주는 ‘이맞돌’로서 기능한다.

4.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이제까지 욥기 연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으로 제안되었던 욥의 아내의 말을 비롯한 2:9-10의 구절의 의미적 중의성을 연구하였으며,

그 모순된 의미의 내용들은 독자들에게 해석의 여백을 제공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욕의 아내의 말은 욕기 서막 안에서 구조적인 평행을 깨고 예외적으로 배치되는 구성적 위치를 지니며, 욕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반응을 끌어내어 표출하게 하고, 전환하게 만드는 ‘전환축’의 기능을 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욕기의 내용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욕의 아내에게 투영되어 욕의 내면의 자아를 암시하는 욕의 아내의 말은 의문과 믿음으로, 탄식과 절망의 분노와 항변으로, 동정의 연민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으로, 욕기의 내용들을 연결하여 지탱해주는 ‘이맛돌’로 기능함으로써, 욕기 전체의 해석을 위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욕의 고난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던 한 사람은 바로 욕의 아내였다. 욕의 아내는 욕의 고통을 함께 겪어낸 자였다. 욕의 고통에 동참하며 욕의 믿음을 함께 공유한 자였다. 이와 함께 욕의 아내는 욕의 내면의 자아가 투영된 의문과 질문을 지닌 자였다. 그리고 욕의 아내의 말은 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욕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반응을 표출하게 하는 촉매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욕의 아내의 말은 욕에게 내면에 잠재되었던 의문을 통해 탄식하며, 고뇌하고, 항변하며, 고난의 터널 문을 열게 하는 열쇠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욕이 필히 거쳐내야 하는 관문이었다. 귀로만 들었던 전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며, 눈으로 보는 만남으로 나아가야 했던 통로의 길목이었다. 이것은 욕이 전통의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욕기 서막에서 ‘욕의 아내의 말’은 그것의 의미적 중의성과 구성적 위치를 통해 욕기 안에서 신학적인 전망의 주제가 전환되는 ‘전환축’으로서, 그리고 욕의 내면의 자아를 투영하며 중심적인 신학적 의제를 연결하는 ‘이맛돌’로서, 욕기 전체의 물꼬를 여는 해석적 열쇠로 기능한다.

<주제어>

욥의 아내, 욥기 2:9-10, 의미적 중의성, 구조, 구성적 위치, 전환축, 이맞돌, 해석적 열쇠

<Key Words>

Job's Wife, Job 2.9-10, Semantic Ambiguity, Compositional Position, Pivot, Keystone, Interpretive Key

* 접수일 2021년 8월 15일, 수정일 2021년 9월 4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10일

참고문헌

- 안근조,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욥의 깨달음』, 경기도: 킹덤북스, 2012.
-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지혜 탄식, 논쟁 안에 있는 신학과 인간학』, 서울: 한국 성서학 연구소, 2006.
- 하경택, 『욥기, 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주년기념 표준주석』,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8.
- Andersen, Francis Ian, *Job,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76.
- Aquinas, Thomas, *The Literal Exposition of Job: A Scriptural Commentary concerning Providence* ed. and trans. A. Damico[translator] and M.D. Yaffe [Interpretive Essays and Notes],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Classics in Religious Studies, 7, Atlanta: Scholars Press, 1989.
- Balentine, Samuel E., *Job, Smyth and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Helwys, 2006.
- Calvin, John, *Sermons on Job*, 16th-17th Century Facsimile Editions,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93.
- Clines, D. J. A., *Job 1-20, WBC 17*, Texas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89.
- Cho, Paul K. -K., “Job 2 and 42:7-10 as Narrative Bridge and Theological Pivot” *JBL* 136:4, (2017), 857-877.
- Gray, John, *The Book of Job*, Sheffield: Phoenix Press, 2010.
- GKC,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신윤수 역,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3.
- Gordis, Robert, *The Book of Job: Commentary, New Translation and Special Notes*, New York: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78, 1965.
- Good, Edwin, *In Turns of Tempest: A Reading of Job*,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Gregory, the Great, *Morals on The Book of Job*, Oxford: John Henry Parker, 1844.
- Habel, N. C., *The Book of Job: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85.
- Hartley, J. E., *Book of Job*, NICOT, Grand Rapids: W.B. Eerdmans, c1988.
- Linafelt, Tod, "The Undecidability of קִרְבִּי in the Prologue to Job and Beyond," *Biblical Interpretation*, 4:2 Jun, (1996), 154-172.
- Longman, Tremper III, *Job*,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12.
- Magdalene, F. R., "Job's wife as Hero: A Feminist-forensic Reading of the Book of Job" *Biblical Interpretation* 14, 3 (2006) 209-258.
- Meier, S., "Job 1-2: A Reflection of Genesis 1-3." *VT* 39 (1989) 183-193.
- Mitchell, Christopher Wright, *The Meaning of BRK "To Bless" in the old Testament*,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7.
- Newsom, C., *T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Joüon, Paul,-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김정우 역, 『성서 히브리어 문법』, 서울: 도서출판 기혼, 2012.
- Newsom, C., *T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Rowley, H. H., *The Book of Job*, NCBC,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80.
- Schaff, Philip(ed.),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Christian Church Volume VIII, Saint Augustine: Expositions on the Book of Psalms*,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9-1975.
- Seow, C. L., *Job 1-21, Interpretation and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3.
- Terrien, Samuel, *The Book of Job: Introduction and Exegesis by Samuel Terrien, Exposition by Paul Scherer, In the Interpreter's Bible, III*, New

York: Abingdon, 1954.

Wilson, Gerald H., *Job* : NIBC,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07.

Wolde, Ellen van, “The Development of Job: Mrs Job as Catalyst” *The Feminist Companion to Wisdom Literature*, (1995), 201-221.

<초록>

욥의 아내의 말이 지닌 해석적 열쇠

이윤정

(한국신학정보연구원)

욥 2:9에 나타난 욥의 아내의 말은 욥기 전체에서 이 곳에 단 한 번 나온다.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 고난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욥의 순전하고 위대한 신앙을 발견하지만, 욥의 아내에 대해서는 욥의 고백을 위한 부차적인 역할을 부여할 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욥의 아내의 말은 독자들에게 웬지 모를 불편함과 막다른 절박함을 전달하며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

본 논문은 욥의 아내의 말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한 가지의 해석적 입장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제까지 우선적인 독법으로 해석되어온 욥의 아내의 말을 포함한 구절들(2:9-10)이 어떤 의미의 중의성을 지닐 수 있는지, 모순된 의미의 현상이 독자에게 어떤 해석의 여백을 제안하고 있는지 살펴며, 특히 욥기의 서막에서 욥의 아내의 말이 차지하는 구성적 위치와 함께, ‘전환축’과 ‘이맞돌’로서 욥기 전체의 해석에 중심적인 단초를 제공하는 열쇠를 지니고 있음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Interpretive Key of the Words of Job's Wife

YoonJeong Lee
(IKTINOS)

The words of Job's wife in Job 2:9 appear only here once in the entire book of Job. Readers of the book of Job discover Job's pure and great faith standing in the midst of suffering, but pay little attention to Job's wife, only giving him a secondary role for Job's confession. Nevertheless, Job's wife's words, "Do you still hold on to your integrity? Curse God and die!"

This paper is not intended to prove a single interpretive position in the study of the words of Job's wife. Above all, it suggests what is meaning of the ambiguity of the verses including Job's wife's words(2:9-10) semantically, which have been interpreted as a primary reading so far, and it examines that field of contradictory meaning gives the reader what kind of space for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along with the constitutive position of the words of Job's wife in the prelude of the book of Job, it is examined that it holds the key to providing a central clue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entire Book of Job as a 'pivot' and a 'keystone.'